

2023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

【 원로 예술활동 지원-문학 】 심의평

2023년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에는 예년보다 많은 응모가 있었고 지원 작품들도 장르별로 고른 수준과 풍성한 주제를 담고 있어 흥미로웠다. 또한 일상의 구체성이 느껴지는 작품들을 볼 수 있어서 경기도 지역의 문학예술의 현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로예술 문학 접수 건수는 총 68건으로 3인의 장르별 심의위원(시, 소설, 평론)의 1,2차 심사를 통해 12건을 선정하였다.

(심사위원 간 합의에 따른 공통) 선정기준은 지원 목표의 구체성, 우수성, 예술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예술적 기여도를 중점으로 보았다.

심의대상 작품들은 ‘원로문학’이라는 생애적 특성을 반영하듯, 노년의 질병과 가난, 그리고 지난 삶에 대한 회고 및 성찰 등의 주제들이 두드러졌다. 또한 자연친화적 소재를 중심으로 인생과 노년의 태도를 가꾸어가려는 글들이 많았는데, 평이한 자연 속에서의 깨달음을 창조적 형식에 담아내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글들도 있었다. 한편에는 자본주의의 부조리, 빈부 격차,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려 갈등하는 정치세태와 환경 문제 등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웅골찬 목소리들도 있었다. 원로문학에서 이채로웠던 것은 이러한 주제들을 ‘시조’라는 전통적 형식에 담아내고 시조의 지평을 새롭게 열어가는 작품들이었다. 식상할 수도 있는 내용과 형식을 원로문학에서 치열하게 다시 각색해가는 현장성이 반가웠다. 한국의 섬을 주제로 한 연작이나 지역의 삶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다사다난한 이야기는 기획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이었다. 또한 경기도의 특정 지역의 문화재를 테마로 시화한 작품들과 지역성에 기반한 농사일과 자연을 그린 창작은 경기예술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작품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작품들 중에 심의위원들은 위의 선정기준을 중심으로 수월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원로문학’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작품들은 대체로 원숙한 사유와 깊이 있는 열정을 보여주었으나 이 중에서도 숙련을 통해 형식적으로 문학적 성취를 보여주고, 주제에 있어서 지역성은 물론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작품들을 우선 선정하였다. 선정된 경기도 예술가들에게 축하를 전하고, 그 외의 지원자들의 분투에도 박수를 보낸다.

2023.5.11.

심의의원

손택수 (시인, 노작홍사용문학관 관장)
하응백 (소설가)
정은경 (중앙대학교 교수, 문학평론가)